

군중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전 정 식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한 숭고한 역사적위업이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군중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중보판 제14권 320페이지)

군중과의 사업은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군중이 하는것만큼 그 성과여부는 군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모든 사업의 첫 공정이며 문제해결의 기본열쇠이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의 령도방법을 구현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무엇보다먼저 군중의 마음을 잘 아는것이다.

군중과의 사업은 그들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다. 그렇기때문에 군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마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것이다.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 사상정신상태와 지적준비상태 등에서 서로 다르며 따라서 마음이 하나같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같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군중의 마음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뚫어보아야 한다.

군중의 마음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주관주의를 범할수 있으며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군중의 마음에 대하여 아는 문제는 욕망만 가지고서는 해결될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손으로 만져볼수 있는것도 아니며 어떤 자막대기로 채어볼수 있는것도 아니다.

군중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만이 알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있으며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런것만큼 일군들은 인정미를 가지고 군중을 대해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어놓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미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정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미덕이다. 인정미는 혁명의 길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에 대한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으로서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하나로 결합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헌신을 낳게 한다.

일군들은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군중을 따뜻이 대해주며 군중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인정미를 지니고 군중을 차별없이 혁명동지로, 자기의 친부모, 친형제와 같이 대해준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마든지 열수 있다. 군중은 자기들을 존중해주고 아껴주며 믿어주는 사람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게 자기의 진심을 터놓게 된다.

군중앞에서 틀을 차리기 좋아하고 간격을 두고 생활하며 군중과 휩쓸리지 않고 정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언제 가도 군중의 마음의 문을 열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군중의 마음을 알수 없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군중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 무엇을 바라고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군중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옹골치게 파악하는데서 특히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알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람은 돌부처가 아닌 이상 사업과 생활과정에 과오를 범할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서는 안된다.

어머니가 못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듯이 일군들은 과오를 범한 사람들일수록 더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라도 매를 드는 어머니에게 안겨드는 자식들처럼 일군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이게 된다.

군중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다음으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적용하는것이다.

군중과의 사업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이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성격과 취미,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며 말고있는 혁명임무도 다른것만큼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식으로 하여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군중과의 사업에서는 만능처방이 있을수 없다.

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고정격식화된 틀에 맞추어할것이 아니라 구체적환경과 조건,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성과의 여부는 대상의 특성을 깊이 파악할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옳은 처방을 내리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대상의 특성을 무시하고 한가지 형식, 한가지 틀에 매달리게 되면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군중과의 사업을 어머니가 같은 피줄을 타고난 자식이지만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막내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것처럼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종업원들의 개성적특성과 준비정도를 옳게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에 맞는 적중한 처방을 내리기 위하여 사색을 거듭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얼마나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가 하는것은 누가 머리를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군중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경우에도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옳은 처방을 내리고 적용해나가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중한 처방은 그 어떤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일군들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탐구과정, 사색의 열매이다.

일군들의 열정은 사색을 동반하고 사색은 열정을 불러일으켜 창조적지혜를 낳게 한다. 그런것만큼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놓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야 좋은 처방이 떠오르게 되는 법이다. 사색하지 않으면 머리에 독이 쏘고 거친 일본새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그 누구는 어떤 사람인데 그에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그의 결함에 대하여 지적해줄 때에는 어떻게 말해주겠는가, 그가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자면 어떤 고무적인 말을 해주겠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에 만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하여도 매 사람의 준비정도와 특성, 사상동향을 파악하여야 할뿐아니라 그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적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다음으로 인민적인 품성을 소유하는것이다.

인민적인 품성은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무한히 사랑하며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고상한 품성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군은 마땅히 인민적인 품성을 지녀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적인 품성을 지녀야 군중과 친숙해지고 허물없이 지낼수 있으며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인민적인 품성을 소유하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을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군들을 위하여 인민들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일군들이 있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군중들로부터 《우리》라고 불리우고 군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보람은 없다.

《우리》라는 호칭은 군중이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값높은 칭호이고 평가이며 일군들에 대한 군중의 표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이다.

일군들은 이민위천의 사상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을 열렬히 사랑하고 존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군중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가르치기 전에 전지전능한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릴줄 아는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하는것이 일군들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손에 기름도 묻히고 신발에 흙도 묻히며 군중과 어울리는것을 떼떽하게, 자랑스럽게 여길줄 알아야 한다.

군중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세도를 쓰거나 관료주의를 부리는 사람,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곁을 주지 않으며 그런 사람과는 심장의 말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중앞에서 겸손하고 레절바르게 행동할뿐아니라 군중이 생활하고 행동하는대로 평범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행동하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 겸손하지 못하고 레절이 없는 일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진실하지 못하며 군중과의 관계에서 솔직하지 못한 일군은 군중의 믿음과 존경, 사랑을 받을수 없으며 나중에는 군중과 리탈되게 된다.

아무리 각오가 높고 열성이 있어도 수준이 낮아 말과 행동을 망탕 하거나 옷차림과 몸가짐을 되는대로 하는것은 일군의 태도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자면 군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일군들자신이 말과 행동을 문화적으로 설득력있게 하고 옷차림과 몸단장도 항상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인것만큼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하여야 하며 품을 들여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며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에로 대중을 불려일으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들을 잘 알고 군중을 적극 발동시켜 당이 준 혁명과업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